

<대구·경북>

전통시장·골목상권 체감경기 '최악'

반짝 호전 소비심리 갈수록 둔화 대책마련 시급 소비 수요 감소가 주 원인

대구·경북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체감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거대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야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가계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대변되는 소상공업의 체감경기는 곧 서민들 삶

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어 소상공업 경기회복을 위한 관심이 절실한 때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소매업, 음식점 등 소상공인 사업체 2000개를 대상으로 지난 달 말 체감경기 지수(BSD)를 조사한 결과 전월보다 15.6p 떨어진 64.2를 기록했다. 체감경기지수(BSD)는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보지만 체감지수가 64.2를 기록해 소상공인들이 비관적으로 경기를 전망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매출 BSI가 14.8p 하락했으며 영업이익(-13.4p), 자금 사정(-10.8p), 원재료 조달(-10.5p) 등도 모두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골목상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소매업의 체감경기가 42.9p나 하락했다. 또 부동산업도 37p 하락해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여파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체감경기 하락 이유(복수응답)로는 소비 수요 감소(84.2%)가 가

장 많이 꼽혔으며 경기 침체(10.6%), 업체 간 과당 경쟁(7.9%), 대형업체 입점(5.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전국 전통시장 점포 1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체감경기도 75.9로 전월보다 27.9p나 떨어졌다. 부문별로는 매출 27.9p, 구매고객 수 27.7p, 이윤 23p, 자금사정 23p 등의 하락 폭을 보였다. 지난 9월 추석 황금 연휴가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반짝 호전됐었으나 10월에 접어들면서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어 소상공업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삼천기자

카메라 뉴스 '추억의 도시락'



7080세대라면 누구나 추억을 어머니가 싸준 양은 도시락을 석탄 난로 위에 차곡차곡 쌓아 점심시간도 되기전 수업시간 선생님 몰래 까먹던 아련한 학생시절의 기억이 있다. 늘 멀지않은 곳에 콩자반과 김치가 전부였던 반찬이 어쩌다 계란 후라이에 소시지 부침개가 있는 날이면 친구들로부터 부러움까지 받았던 추억의 도시락을 떠올리게 한다. 일부 외식업체들이 도시락을 활용한 마케팅에 나설 정도로 추억의 도시락이 인기를 끌면서 29일 오후 대구의 모 대학 앞 한 카페에 70년대 교실을 배경으로 난로까지 갖춰놓고 추억의 도시락을 판매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대구경북 개인회생 신청자 늘어

어음부도율도 덩달아 급상승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대구·경북지역에서 빚갚을 능력 상실로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고있어 대脚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파산 신청에 대한 기준 등이 까다로워진 탓도 없지 않지만 최근들어 가계대출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약화된 경기가 좀처럼 되살아나

지 않은 장기불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지역 제조업체의 고액 어음부도가 잇따르면서 대구·경북지역 어음부도율도 급상승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발표된 '11월중 지역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신규부도 업체수는 전월보다 4개 늘어난 12개로 부도금액은

147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지역 어음부도율은 전월보다 0.06%포인트 상승한 0.35%를 기록해 타 지역권 어음부도율을 크게 웃돌고 있어 장기불황의 여파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경북도내 개인회생신청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 1500여 건에 이르던 것이 갈수록 늘어나 지난 10월 말 기준 2배에 가까운 25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갈수록 개인회생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심각한 경기불황 여파로 소비자물가가 위축되면서 저물가 기조의 지속으로 소비부진마저 초래하고 있다. 때문에 저물가가 심화되면서 생산역시 악영향을 미쳐 실업율을 상승시키는 디플레이션 발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경제환경에서는 신용불량자들이 양산 될 수밖에 없어 소비심리를 끌어올리는 정책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이종말·이종환기자

'세포배양 독감백신' 세계 3번째 허가 획득 SK케미칼, 국산화 성공·글로벌시장 공략

SK케미칼이 국내 최초의 세포배양 방식 독감백신인 '스카이셀플루' (skyCellflu)의 제품 허가를 식약처로부터 획득했다. 노바티스, 박스터 등의 글로벌 기업에 이어 세계 3번째의 상용화 성공이다. 세포배양 방식은 유정란 대신 동물세포를 사용해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백신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 방식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생산에 착수해 2개월이면 초도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세계보건기구가 배포한 종자균주가 국내에 입고된 후 약 5개월이 지난 후에 초도 물량이 출시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단축된 셈이다. 또 유정란 확보 량에 생산량이 좌우되는 기존 생산 방식과 달리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조류 독감과 같은 외부 오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긴급 상황을 대비한 차세대 백신 생산 시설로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 상황 극복 이후 '신종플루 범부처 사업단'을 출범해 조류 독감 및 예상치 못한 변종 바



SK케미칼이 국내 최초의 세포배양 방식 독감백신의 제품 허가를 식약처로부터 획득했다.

이러스의 대유행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을 대비한 백신 제품화와 R&D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북도와 안동시는 대규모 '세포배양방식

의 독감 백신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해 '인플루엔자 등 백신 원료 맞춤형 생산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으로 SK케미칼을 선정해 경북바이오산업단지(안동) 내에 착수했다. 윤재철기자

알림 경상투데이가 지면혁신으로 힘찬 아침을 열어갑니다

대구·경북의 대표 정론지 경상투데이가 2015년 새해를 맞아 대대적인 지면개편을 단행합니다. 우선 지면 구성을 바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독자들의 관심거리인 주요 면을 확대 전진 배치합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의 소식과 감동을 전하는 사람들 난도 확대하고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기획기사 지면도 신설합니다. 신문의 얼굴인 1면 레이아웃 및 지면안내의 변화도 기합니다. 지면

혁신에 발맞춰 인터넷 홈페이지도 대폭 개선하며 오피니언 면도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합니다. 경상투데이는 이번 지면혁신과 함께 더욱 알차고 충실한 기사발굴을 통해 대구·경북의 발전을 선도할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바른소리를 주저없이 할말을 다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경상투데이 임직원 일동



지난 40년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40년의 미래를 열어 갈 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합니다

- ✓ 삼성, 포스코와 손잡고 제조업 혁신 3.0 시대를 열어 갑니다
- ✓ 전문문화와 농업도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 됩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한민국 창조산업단지의 요람입니다.

중소기업의 공정혁신과 임종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로
스마트공장 확산, 신산업 창출을 통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대한민국 창조경제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경북도,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친환경농업 육성 등 6개 분야 81종 사업 4,652억원 투입

경북도는 대외적으로 한·미FTA 발효, 한·중FTA 타결 등 시장개방 압력이 가속화되고 대내적으로는 농촌의 고령화, 농산물 수급불안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농업·농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도에 친환경농업 육성, 곡물자립기반 조성, 농업기계화, 선진과수생산시스템 구축, 첨단 원예·특작산업 육성, 농가소득 안정화 6개 분야 81종 사업에 지난해보다 8.2% 증액된 4,65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및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을 위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유기질비료 지원, 전략적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22종 사업에 607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낮은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쌀, 맥류, 잡곡류 등 곡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373억 원을 투입해 2014년 43개소인 고품질쌀 경영체를 49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주요사업은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 육성, 토종곡물 재배단지 조성, 토양개량제 공급,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 RPC건조저장시설지원 등 14종이다.

또한, 농가 일손 부담 경감 및 영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형농기계공급, 벼 육묘공장 설치, 벼재배 생력화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과수생력화장

비 지원 사업 등 14종의 사업에 493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FTA 등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736억 원을 투자해 2014년 9,900ha인 키낮은 사과원 면적을 11,200ha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다목적능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과실 품위유지제 지원,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 등 12종이다.

아울러, 첨단 원예·특작산업 육성을 위해 976억 원을 투자해 금년 2,800ha인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3,400ha로 확대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은 시설원에에너지절감시설, 화훼생산시설경쟁력 제고, 시설원에목재펠릿난방기

보급,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설치, 시설원에품질개선, 소득작목육성, 민속채소 생산기반확충 사업 등 14종이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6종 사업에 1,46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주요사업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조 건불리직불제, 발농업직불제, 친환경 농업직불제 등이다.

최용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다가오는 2015년에는 친환경농업정책의 수요자인 농업인과 소비자가 적극 소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작목 발굴과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팔 기자



경북도는 29일 '2014년 경상북도 평생교육 추진시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군에 대해 도지사 상패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경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우수 시·군 포상

대상 칠곡, 최우수 경산·김천, 우수 포항·예천

경북도는 29일 '2014년 경상북도 평생교육 추진시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군에 대해 도지사 상패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평생교육 시책 평가 제도는 평생교육에 대한 지역의 인식을 제고해 시·군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도내 평생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비평생학습도시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평생학습도시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을 구분해 평가했다.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우수 프로그램 강화, 평생학습으로 인한 주민의 사회적 활동, 시·군의 평생교육 체제 확대, 전략적 평생교육 사업 추진실적 등 다양한 평생교육 시책 성과를 평가했고, 각 시·군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대상을 받은 칠곡군은 우수한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평생교육과 인문학을 접목해 명실상부한 인문학 평생학습도시로서 특히 올해 제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도내 평생학습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평생학습도시 부문의 최우수상을 받은 경산시는 평생교육을 통한 가족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청소년오케스

트라 및 학부모합창단을 지역 차원에서 양성해 주말을 활용한 온 가족의 건전한 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시되는 가족의 소통과 화합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반도시 부문의 최우수상을 받은 김천시는 예비 평생학습도시로서 전반적인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고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해 소외계층 프로그램, 마을작은도서관 운영, 배달 강좌,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평생학습도시 부문의 우수상을 받은 포항시는 2013년 건립된 평생학습원을 거점으로 남구와 북구에 평생학습관 4개소 건립, 29개 전 지역 읍면동 평생학습 운영 체제 구축으로 주민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기반 조성이 돋보였다.

일반도시 부문의 우수상을 받은 예천군은 평생교육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관심을 높이고 전년도 사업의 자체 평가·분석을 통해 금년도 평생교육 사업에 반영해 개선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종팔 기자

건설산업 氣 살리기 '경북도 건설인상' 시상

(주)정일 건축사사무소 임송용, 대상 선정

경북도는 29일 인터볼고 엑스코에서 건설산업 '氣 살리기' 심포지엄을 열고, 제1회 '경상북도 건설인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건설관련 4개단체(일반건설, 전문건설, 설비건설, 건축사회) 300여 명의 건설인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에서는 윤재섭 한국여가연구소장의 '건설산업에 '活氣'를 불어넣고, 건설인의 '士氣'를 드높여 경북의 건설 '景氣'를 활성화에 대한 건설산업 '氣 살리기' 특강이 실시됐다.

이어, '제1회 경상북도 건설인상 시상식'과 '건설현장 안전과 준법경영실천 결의문 채택', 희망찬 올미년 '건설경기 대박 터트리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건설인들의 화합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특히, '제1회 경상북도 건설인상' 시상식은 건설산업을 통해 향토발전이 기여한 공로가 많은 업체를 선정시상함으로써 올바른 건설산업 문화를 확산과 건설인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제정됐으며, 수상자는 지난 19일 '경북도 건설인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됐다.



경북도는 29일 인터볼고 엑스코에서 건설산업 '氣 살리기' 심포지엄을 열고, 제1회 '경상북도 건설인상' 시상식을 가졌다.

부문별 수상자는 건설대상에 임송용(57세, (주)정일 건축사사무소와 일반 건설부문에 양승인(59세)·이충규(59세), 전문건설부문에 정해준(65세, (주)경일건설), 조규철(63세, (주)삼성조경)에서 수상했다.

또 설비건설부문은 김형근(54세,미

래공조플랜트(주))이 받았다.

김관용 도지사는 "건설인상 수상업체들은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시공능력평가, 일자리창출, 신기술개발, 건전경영 등 여러면에서 모범이 되는 업체로 경북 건설산업의 견인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고, "오늘 이 행

사는 건설인의 氣를 살리는 자리로 건설단체가 상생 노력해 건설인의 사기를 높이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을 위해 4개 건설단체가 앞장서 달라. 내년에는 건설경기 '대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종팔 기자

2014 도로정비 우수기관 시상

최우수 구미, 우수 김천·청도

경북도는 최근 올 한해 도로정비 추진 실적이 우수한 구미시 등 5개 시·군을 표창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도로정비 우수기관 선정은 금년도 '도로유지보수'와 '추계도로정비',

'겨울철 도로월드대책'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 최우수상에 구미시, 우수상에 김천시와 청도군, 장려상에 영천시와 영덕군이 선정됐다.

경북도는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군도 5,364노선 6,529km에 대한 도로정비를 실시했다.

이종팔 기자

군위에서 역사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민족역사 1번지

삼국유사 가은누리에서 삼국시대를, 인각사 일면소님을 통하여 고려시대를, 역사재현 공원에서 조선시대 체험을, 화본마을 '엄마마마 어렸을적'에서 근·현대를 ...

군위

Where the history of Korea has begun.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00%' 인상

경북도 연간세수 매년 1,000억원 이상 전망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가 100% 인상된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현행 kWh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제석 198명 찬성 198명으로 통과했다.

이는 지난 2006년 원전세를 도입한 지 9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경북도를 비롯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이날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함에 따라 도내에서 거둬들이는 원전세는 현재 연간 328억 원에서 656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는데, 지난달(11.13) 준공한 신월성 2호기를 포함하면 연간세수는 398억원이 늘어난 726억 원에 달할 것으로 경북도 관계자는 전망했다.

여기에도 추가 건설·계획 중에 있는 신한울원전(4기) 등을 감안하면 향후 경북에서만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원전세수를 거두어들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

사능 방재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늘어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위한 지자체의 방재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칙에 신설함으로써 실제 세수도 플러스 효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앞으로 거두어들이는 원전세는 65%는 원전이 있는 시군지역에 35%는 도세입으로 하여 원전지역과 인접지역의 개발사업, 안전대책·방재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쓰여 지게 되는데, 특히, 도 역점프로 추진하는 동해안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그 동안 원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원전세 현실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면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원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을 본격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북지역에는 모두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는데 이는 전국 24기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국내 최대의 원전 집적지이다. 지역별로는 경주 6기, 울진에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다.

이종필기자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한 멘토가 되겠습니다!" 한수원 지식나눔 교육 봉사활동인 '아인슈타인 클래스' 발대식에서 멘토로 선정된 대학생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한수원, 겨울방학 지식나눔 교육봉사 실시

아인슈타인 클래스 운영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이하 한수원)은 이번 겨울방학에 지식나눔 교육봉사 활동인 '아인슈타인 클래스'를 운영한다. 한수원은 29일 서울사무소에서 대학생 멘토 52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계획을 점검하는 발대식을 열었다.

아인슈타인 클래스는 성적 우수 대학생들을 멘토로 선발,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원전 주변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 및 진로를 코칭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아인슈타인 클래스'는 지난 2010년 첫 시행 후 지금까지 240명의 멘토들이 1,900여명의 멘티들과 함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나누었다. 특히 올해는 대학생 멘토의 규모를 늘려 기존 원전 4개본부와 더불어 한강수력본부 인근의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도와 멘토링도 펼칠 예정이다.

한수원은 학습지도 능력과 봉사정신이 뛰어난 대학생 52명을 멘토로 선발했으며, 원전 인근과 한강수력본부 주변 지역 초·중·고교생 중 집안 사정이 어려운 학생 위주로 460여명의 멘티를 선발했다. 멘토들은 겨울방학 1월 한 달 동안 멘티들에게 학습지도와 상담을 통해 진로와 인생 설계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석 사장은 발대식에서 "지식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멘토 대학생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학습 여건이 좋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공부뿐 아니라 진로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멘토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원전 주변 지역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육기부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인호기자

문경시, 농가안정 11억원 특별지원금 지급

소득감소 관내 4,506 농가 대상

문경시는 지역 쌀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올 한해 벼를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총 11억3천2백만원(26만 원/ha)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지원금은 전국적인 쌀 생산량 감소와 쌀값하락, 생산비 증가 등 실제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실

정을 반영한 것으로 문경시 관내 4,506 농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요건은 문경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벼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단, 농의 수입이 3천7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업인과 벼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농업인은 제외하며, 특별지원금은 지난해보다 3만원 증가

한 ha당 26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조곡 40kg 포대당 1천428원의 지원 효과가 있어 농업소득증가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당초 공공비축미곡 14만4,200포 외에 시장격리곡 9만7,628포를 더 수매한 것으로서 이는 지역 벼 재배면적 4,600ha를 감안할 때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량을 수매하여 지역 농업인

들의 농가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고윤환 시장은 이번 특별지원금이 올해 쌀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위료가 되었으면 바라면서 앞으로 "문경시는 농업행정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이 잘살아야 문경시내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신념아래, 5년 내에 농가소득 2배 올리기 운동 및 농민이 잘사는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업시설, 장비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항상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세현기자

제3회 자랑스런 초전인賞

김용수 전 국회의원 '수상'

김용수 전 국회의원(86)이 (주)제스코(회장 이기원)에서 출연 시상하는 제3회 자랑스런 초전인 상(賞)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성주드림악단에서 개최한 2014년 별고을 장학기금 마련 자선음악회의 2부행사로 진행됐으며 상패와 부상으로 순금 한냥(37.5g)의 메달과 '자랑스런 초전인상 수상자의 집'이라는 명패도 주어졌다. 김 수상자는 예비역 공군소장, 11대 국회의원, 대한중석 사장, 초전 초등학교 총동창회장을 역임했으며,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왔다. 자랑스런 초전인 상(賞)은 2012년부터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초전면민 및 출



김용수 전 국회의원이 (주)제스코에서 출연 시상하는 제3회 자랑스런 초전인 상(賞)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향인사에게 수여하고 있다.

자랑스런 초전인상 시상에 이어 (주)제스코(회장 이기원)에서는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성금 2,000

만원을 초전면에 기탁했다.

또 지난 2000년도부터 이어오는 고향 어른스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초전면 문덕2리에 전달했으며,

장학금 200만원을 초전초등학교에 전달해 기부천사로서의 사랑을 실천했다.

김경희기자

경산시, 4천억원 국비예산 확보

건설기계·특화단지 조성 청신호

경산시는 내년도 국가 직접시행 사업 2838억원과 시 시행사업 1424억원 등 총 4262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8일 경산시에 따르면 당초 국비확보로 목표했던 3558억원 보다 704억원이 더 많은 4262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 200억원 등 경산지식산업지구 조

성 사업비 548억원과 경산4월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80억원 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 최 시장이 직접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찾아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시장 이하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들도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에도 새로운 국비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비확보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호기자

社告

경상투데이와 함께 하십시오

불편부당의 자세와 언제나 울퉁불퉁한 소리로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건전한 여론을 대변하는 정론지로서의 책임속에 '희망'을 배달하는 '경상투데이'와 함께 할 패기있는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작은 일에도 귀 기울이고 이 시대를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시도민들의 맘 냄새가 진하게 풍겨 나오는 이야기로 지역발전 및 선도적 역할에 앞장설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 지방담당 기자 모집분야

경상투데이 본사	취재·편집 분야	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대 이상 남(병력필 및 면제자)여 각 1명
대구취재본부	대구 일부 지역	
동부취재본부	영양·울릉·울진	
중부취재본부	구미·김천·상주	
남부취재본부	청도	
북부취재본부	영주·예천	

■ 지원 일시

- 2014년 12월 8일~12월 30일까지 접수 (접수 마감 당일 오후 6시까지) 및 본사 메일 접수

■ 지원 서류·발표

- 사진 첨부한 이력서, A4용지 반 장분의 자기소개서, 반명함판 사진 2매 (접수된 지원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사 발표 : 본사 인사위원회 입사 결정 심사 후 전화 통보

■ 지원 장소·문의

경북 경주시 원화로 244번지 (황오동) 및 본사 총무국 (054) 748-0070, 입사지원 메일 : gst3000@naver.com 및 이력서 지참 내방

경상투데이





영주소방서(서장 김대진) 119구조구급센터는 다리에 근육경련 및 저체온증 증세가 보이는 환자를 응급처치 후 소방헬기를 이용해 안전하게 병원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영주소방서, 소백산 저체온 등산객 긴급구조

영주소방서(서장 김대진) 119구조구급센터는 다리에 근육경련 및 저체온증 증세가 보이는 환자를 응급처치 후 소방헬기를 이용해 안전하게 병원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영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 32분경 소백산국립공원 비로봉 정상 400m전 지점에서 이모(남, 48세) 씨가 체력저하 및 온도변화로 인한 양

다리 경련과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일행이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119구조·구급대원 6명은 신속하게 사고지점으로 출동해 현장 응급처치를 하고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해 소방헬기를 요청 인근병원(영주지독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류효환기자

안동시, 중요목조문화재 보호 안전경비인력 33명 신규채용

안동시는 내년부터 중요목조문화재 9개 지역에 안전경비인력을 배치해 근무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지원 인력을 접수한 결과 총 76명이 지원을 했으며, 서류전형 을 거쳐 33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번 신규채용 안전경비인력 전원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야간 24시간 문화재 감시 활동을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문화재 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해 쾌적한 관광명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배치될 경비인력은 봉경사, 안동임청각(보물182), 개목사 원통전(보물242), 안동하회양진당(보물306), 안동하회충효당(보물414), 안동의성 김씨 종택(보물450), 안동소호현(보물475), 예안이씨 충효당(보물553), 도산서원(사적170) 등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시 지역 내에 있는 중요목조문화재의 안전을 책임진다.

윤재철 기자

봉화, 가축분뇨 유출사고... 10여톤 하천 유입

석평리 소재 돼지돈사서 발생, 악취유발로 민원쇄도

지난 28일 12시경 봉화읍 석평리 소재 돼지돈사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돼 수질오염과 함께 악취유발로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봉화군 관계자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저장조에서 교반을 위해 작업하는 과정에서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 분뇨 120여톤이 하류 도수로로 유출

되었으며, 이 중 약 10여톤이 인근의 내성천으로 유입돼 악취가 퍼져 한동안 소란을 피웠다. 봉화군은 신고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 출동해 추가 유출을 방지하고, 도수로에 흡제방을 3개소 설치해 내성천으로 더 이상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고여 있는 가축 분뇨를 회수했다.

또 오염된 도수로를 정비하는 등 방제 작업에 관계부서는 집중하고 있으며, 가축 분뇨를 유출시킨 농장주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봉화군의 돼지분뇨 무단방류는 지난 2012년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을 추진중에 있으나, 반대측 주민들로 인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리소홀로 가축분뇨 무단방류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내성천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으나 반대측 주민들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좌초될 우려가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류효환기자

포항시 "출근길 숙취운전·퇴근길 음주운전 안돼요"

연말연시 예방홍보 캠페인 전개

포항시는 29일 연말연시를 맞아 출근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부서회식과 각종 친목모임 송년회와 신년회 등으로 음주 운전 사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방 차원에서 전개됐다. 포항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음주운전 단속이 야간 계림라 단속뿐만 아니라 출근길과 낮 시간에도 이루어지는 등 단속이 강화된 점을 감안하여 부서 회식시에는 부서장의 사전교육 강화와 과음 후 익일 출근길 자가운전 금지 등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캠페인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년 대비 음주운전 공무원 수가 대폭 감소 추세(45% 감소)에 있지만 모임이 잦은 연말과 연초에는 음주



포항시는 29일 연말연시를 맞아 출근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운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사전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근길 캠페인에 동참한 직원들은 '출근길 숙취운전, 퇴근길 음주운전 NO!' 라는 스티커가 부착된 홍보 물티

슈를 받고, 음주운전 금지 다짐 글을 게시판에 남기는 등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지난 2012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 양정기준이 대폭 강화돼

공무원은 음주운전시 벌금과 벌점외에도 음주운전 횟수와 사건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해임까지 신분상 처벌을 받게 되며, 징계의 감경이 불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차재욱기자



예천경찰서는 지난 26일 예천지구대 신청사에서 예천지구대 준공식을 가졌다.

예천署, 군민과 함께하는 '지구대 준공식'

예천경찰서(서장 박달서)는 지난 26일 예천지구대 신청사에서 예천지구대 준공식을 가졌다. 신청서는 예천읍 충효로 198번지에 대지면적 350㎡(105평), 건물면적 253.68㎡(76.74평)으로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역주민과 장애인 편의성을 최대한 감안한 설계와 시공으로 쾌적한 환경을 갖춰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민의 오랜 염원이던 이 사업은 이

항성 국회의원이 각고의 노력으로 국비 8억5천5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9월 1일 착공해 4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이날 준공식을 가졌다. 박 서장은 "예천군민들이 지어준 쾌적한 예천지구대에서 새로운 마음과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재철 기자

Cheong Song

아삭~아삭~아삭!!
맛있는 사과를 소리부터 다룹니다!

사과의 명품 -
청송사과

청송의 청정자연이 키워 더 맛있는 청송사과!
아삭~ 아삭 시원 달콤!!
육질매 단단하고 풍부한 사과하면 단연 명품 청송사과입니다.

청 송 군

명품 청송사과 구입문의 1577-7997



경주경찰서 외국인범죄예방대책위원회는 성탄절 및 연말을 맞이하여 지난 24일 '사랑의 쌀 전달 행사'가 열렸다.

“이웃 사랑, 내·외국인 따로 없어”

경주경찰서 외국인범죄예방대책위, 쌀 10Kg 100포 전달

경주경찰서 외국인범죄예방대책위원회(위원장 문복만)는 성탄절 및 연말을 맞이하여 지난 24일 '사랑의 쌀 전달 행사'가 열렸다.

본 행사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마련, 외동읍에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과 경주외국인센터 등에 10Kg/100포대를 직접 전달하여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본 위원회는 경주경찰서 소속으로 외국인의 범죄예방을 위해 2011년 3월에 조직되어 현재 49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에 있으며 경주시 거주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외동읍에 외국인의 범죄를 예방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 조성에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활동 중에 있다.

이인호 기자



선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4일 성탄절을 맞이하여 선도동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 10kg 20포 및 라면 20박스를 기부했다.

선도동 주민자치위 “따뜻한 마음을 나눠요”

소외 이웃 생필품 기부 '훈훈'

선도동 주민자치위원회(회장 박종해)는 24일 성탄절을 맞이하여 선도동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 10kg 20포 및 라면 20박스를 기부했다.

선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정부에서 보호받는 대상자 외에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도상의 기준으로 탈락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날 박종해 회장은 “국가에서 정한 법적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하는 것을 살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도동 주민들을 돕고 싶었다며, 이는 비단 선도동 주민자치위원회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해근 선도동장은 “성탄절날 가족 또는 연인끼리 보내는 이가 많지만 이번엔 독거노인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참사랑으로 돌아보는 것도 좋은 인연”이라며 감사했다.

이인호 기자

경주박물관대, 지역알림이 역할 '톡톡'

대구·포항·부산·울산 등 전국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사)경주박물관회(회장 이광오)에서 주관하고 운영하는 '경주박물관대학'이 27일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 강당에서 기초반 제3기, 연구반 제3기 수강생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은 동국대 한정호 교수의 '미술사의 이해-황룡사' 주제로 마지막 강의 후, 오후 3시에 수강생 기초반 90명과 연구반 30명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경주박물관대학은 국립경주박물관 내에 위치해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경북도민에 대한 전통역사문화에 대한 기초교양과 문화재보호 의식을 고취시키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1994년 설립해서 현재까지 약 20여 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다.

경주박물관대학은 평소 우리 문화유산(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경주 지역 주민을 비롯한 경북도 지역은 물론 인근 부산, 대구, 울산 등 지역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12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1년 과정의 교과과정을 개설한다.



(사)경주박물관회에서 주관하고 운영하는 '경주박물관대학'이 27일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 강당에서 기초반 제3기, 연구반 제3기 수강생 수료식을 가졌다.

역사, 고고학, 미술사, 문화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정을 가지고 문화재 관련 전국 대학 교수와 박물관장 그리고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매주 문화강좌를 실시하며 주말에는 경주권 및 주변 문화유적지를 찾아 답사활동을 전개, 현장 체험적인 학습이 되도록 교육하고 있다.

경주박물관대학은 39기를 거치는 동안 기초반 4200여명, 연구반 12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 이들이 경주시는 물론 경북도와 울산, 포항, 부산, 대구 등지

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이상의 문화관광교육장은 “우리 경주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경주박물관대학의 수강생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인호 기자

양동마을 전통제례 문화콘텐츠 개발연구

학술세미나·제례시연 열려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위덕대학교 양동문화연구소(소장 신상구)가 주관하는 문화콘텐츠 개발연구인 '양동마을 전통제례 학술세미나 및 제례시연'이 지난해 '양동마을 전통 관·계례'에 이어 올해도 양동마을에서 열렸다.

27일 양동마을 문화관에서는 200여명의 마을주민과 출향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양동마을 전통제례 학술세미나가 개최 되었고, 오후 12시부터는 전통제례시연이 거행 됐다.

제1부 행사인 이번 학술세미나는 전통적 의례인 제례에 대해 연구하고 현실에 적합한 문화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양동마을의 전통제례 문화콘텐츠의 개발 연구'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 한다.

양동문화연구소 '신상구' 소장이 기조발표를 맡아 '제례에 대한 전통적 인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위덕대학교 양동문화연구소가 주관하는 문화콘텐츠 개발연구인 '양동마을 전통제례 학술세미나 및 제례시연'이 양동마을에서 열렸다.

식'이라는 제목으로 제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밝히면서 제례가 의미 있는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 했다.회제 이인적선생이 집필한 제사의식과 절차 등을 집필한 '봉선잡의 특징'에 대하여 한동대 '김윤규' 교수가, '양동제례 음식에 대하여'는 위덕대 '이인숙' 교수가, '양동마을 제

례의 문화콘텐츠화 방향'에 대하여 경북대 '권영호' 교수가 각각의 주제를 발표했다. 2부 행사는 양동마을운영위원회의 후원으로 '양동마을 전통제례'가 시연 되었으며, 시연된 제례동영상은 학술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인호 기자

동공원, 연말연시 맞아 꽃마차 등 운영 '눈길'

경주 동공원이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를 맞아 트리 조명, 꽃마차 등을 설치운영으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지난해 9월 개장한 이래 6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는 동공원은 관광객들에게 감사의 의미와 다가오는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희망을 담아 크리스마스 트리 야간조명시설 등을 설치했다.

트리 조명은 동공원 새들교 옆에 식재된 느티나무 5주에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LED 전구와 장신구로 장식되어 있고 진·출입로 뒤편에도 야간조명을 설치해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또한 동공원은 꽃마차와 소원의 궁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인호 기자

<http://www.andongjang.com>

사이버안동장터로 오세요.

사이버 안동장터 인터넷 주소: <http://andongjang.com>

문의전화: 080-501-0501, 054-853-5088 팩스: 054-841-5377

사이버 안동장터는 안동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특산물을 산지가로 직거래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안동시에서 운영합니다.

포항시 공무원, 창조경제 활성화 '앞장'

지곡테크노밸리 내 창조경제혁신센터·R&D 기관 견학

최근 17개 시·도에 기업·지자체, 정부부처가 손을 맞잡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해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육성시키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순수 민간 자율형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출범하고 1월말 개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29일 창조경제 선도적 역할을 주도하고 있는 포항시 직원 80여명과 함께 지곡 테크노밸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POSTECH C5동 포항창조경제 혁신센터 및 R&D 기관을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민간자율형 포항혁신센터와 건설중인 4세대 방사광 가속기 현장을 방문해 홍보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민선6기 출범이후 침체되어 가는 철강 산업에서 탈피하여 포항

산업 구조 다변화를 꾀하고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의 축을 만들어 융합 발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창조경제 혁신센터 설립을 추진해 왔다.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대·중소기업 간 융합, 상생 발전 정책을 수립 정부와의 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입안해 예비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초기 단계 멘토링부터 자금, 투자연계까지 지원하는 창업 지원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도 적극 지원하고,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과 공간을 지원해 예비 창업자의 제품 완성도와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창조경제 시스템 구축 및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포스텍 지곡 연



포항시는 29일 직원 80여명과 함께 지곡 테크노밸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POSTECH C5동 포항창조경제 혁신센터 및 R&D 기관을 견학했다.

구동에 APGC-Lab 및 APGC 기업중 하나인 엑스브레인(주) 등 3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앞으로도 입주 기업들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 혁신센터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 김상태 창조산업에너지과장은 "민간 주

도의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친환경 제조업과 산·학·연 생태계 조성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교두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영덕, 흥겨운 새해맞이 '준비 완료'

삼사해상공원서 경북대중 타종·해맞이 축제 개최

영덕군은 31일과 2015년 올미년 1월 1일 이틀간 삼사해상공원 일원에서 제야의 경북대중 타종과 2015 영덕 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2015 영덕 해맞이축제는 '칠백년 경북의 소리! 천년을 향한 영덕의 빛으로!'라는 주제로 아래 펼쳐진다. 이는 고려 충숙왕 원년인 1314년에 처음으로 경상도로 불린 7백년의 역사와 2015년 신도청 시대의 원년 동해 일출의 서광이 천년을 향한 영덕을 영덕에서 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덕군은 한 겨울 추위 속에서도 일출을 보기위해 영덕을 찾은 손님들을 위해 의미 있고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31일 오후 5시부터 올미년 새해의 흥과 안녕을 기원하는 영해별신굿 놀이와 영덕의 전통문화인 월월이청정공원이 펼쳐진다.

이후 오후 8시에는 삼사해상공원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김수희, 현숙, 박주희, 마야 등 인기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도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가 열린다.

새해를 알리는 자정행사에서는 신도청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퍼레이드와 경북대중 계단에 양의 이미지를 랩핑하며 새해맞이 분위기를 돋

운다. 드디어 대망의 자정이 되면 경북대중에서 33번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희망찬 올미년 새해의 개막을 알린다.

1월 1일 새해 첫 동해의 장엄한 일출을 맞이하는 해맞이 행사는 6시 40분부터 시작된다.

힘찬 대북공연과 영덕군 여성합창단의 새해찬가 공연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해가 뜨는 7시 30분과 40분 사이에 새해 소원을 담은 2015개의 풍선과 대형 연을 하늘 높이 날리며 희망을 기원한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 행사로 타포점과 토정비결 부스와 포토존, 영덕의 특산품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도 운영된다.

특히 아침 해맞이 행사 때는 지역 봉사단체에서 준비한 떡국을 관광객들과 나누는 세시음식 나누기 행사를 펼치며 훈훈한 정을 나눈다.

영덕군은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하기위해 주차와 교통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위생점검을 마치고 삼사해상공원과 해안가의 환경정비 등을 실시해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상청에서 밝힌 영덕의 2015년 1월 1일 일출시간은 07시 34분~36분 경이다. 임상휘 기자

영천시, 연말연시 재난안전 대비 민·관 합동 점검

동절기 취약지역 대상 지속 실시

영천시는 지난 24일 영천 완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현장과 이마트 영천점에 대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크리스마스 및 연말을 맞아 사회적으로 들뜬 분위기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임을 감안해서 각 분야별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사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경북도 주낙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영천시, 소방, 전기안전·가스안전공사, 관련학계 교수, 승강기안전관리원 등 관련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갑작스런 폭설에 대비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실태와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전기·가스·승강기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유사시 필요한 대응능력 등 비상대응 실태를 점검해 사전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했다.



영천시는 지난 24일 영천 완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현장과 이마트 영천점에 대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가 실시하는 '연말연시 100일 특별 재난안전대책 민·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은 한파·폭설·화재 등 동절기에 취약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동절기 레저 다중이용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해 내년도 연초까지 지속적으로 실

시할 예정이다. 점검 후에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관리주체에게 즉시 적정 관리방안을 제시해 현장에서 시정토록 지도하고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김영석 시장은 "동절기 폭설로 인한 건축물 붕괴 등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된 사례가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

오목천 수계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해제

경산시민 사유권 침해민원 해소

경산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오목천 수계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이 해제 고시되어 2015년 1월부터 발효된다. 전체면적 62.94㎢중 하양·진량읍·자인·압량면·동부·서부·북부·중방동지역 43개마을 42.92㎢지역이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에서 해제되어 제조업 신규설립 등의 개발사업 투자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며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사유권 침해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2013년 11월 경산시가 환경부를 방문해 오목천 수계에 지정된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정의 불합리함과 해제를 위한 환경부의 도움요

청을 시발점으로 하여 지난 5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과 지난 8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이어 12월 24일에는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해제 고시문 관보게제 요청으로 확정됐다. 경산시는 지정해제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99%를 차지하는 대구시와 동구청을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해제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노력을 통해 지자체간 협의도 이끌어 냈다.

경산시 관계자는 "지역내 개발요지 42.92㎢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제조업 신규설립 등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되며,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규제개혁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인호 기자

급수구역확장공사로 안정적 물 공급

의성·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완료, 단계적 급수관로 설치

의성군은 지난 24일 광역상수도 공급되지 않는 단촌면 및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봉양면 일부 등에 안동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한 의성·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2단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총사업비 220억원을 투입해 단촌통합배수지를

시점으로 안동방면 단촌·점곡·옥산면과 의성읍, 사곡·봉양면에 송·배수관로 68Km를 설치하고 옥산배수지, 송·배수가압장 4개소 등의 수도시설을 설치해 상수도 공급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의성·안동광역상수도 급수현황은 의성읍 전체(지선2, 오로1 예정)와 단촌면 일부(방하, 세촌2, 상화1,

2, 하화1), 점곡면 윤암리, 봉양면 분토리, 문흥리 일원이며 2015년부터 단촌면과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봉양면 주민도 배수관로가 완료된 지역부터 연차별로 급수구역확장공사를 통해 안정적인 물 공급을 받게 된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통한 중앙급시 제어시스템 확보로 그동안 분산 운영되던 정수장관리 대신 중앙 운영관리의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해져 효율

적이고 합리적인 유지관리 및 비상시 응급 대처능력도 기대된다.

김주수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후시설 교체와 각 구역별 사각지대에 단계적으로 급수관로를 설치하여 상수도 공급률을 오는 2025년까지 87.6%까지 향상시키고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에게 물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태호 기자

‘행복대가! 건강대가! 마을 만들기’ 추진

성주 대가면 건강새마을 평가 보고

성주군은 대가면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평가보고회를 대가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건강위원회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사업평가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평가대회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13개 마을을 평가해 우수마을 2개소에 대한 시상과 경북대학교 김건업 교수의 ‘주민리더의 역할’이라는 건강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건강취약지역으로 선정된 대가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기반조성을 위한 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선진기관 등을 방문했으



성주군은 대가면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평가보고회를 대가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건강위원회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사업평가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며, 주민 홍보를 위한 발대식과 건강새마을 축제, 마을회관 이용자를 위한 운동·영양·금연·구강관리 등의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2015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은 주민 주도형, 주민 참여형 사업 정착을 위해 대가면 건강위원회가 중심이 돼 보건

소와 대가면사무소는 행정지원팀으로 서로 협력하며 주민과 함께 ‘행복대가! 건강대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

김경희 기자

성주, 어린이집연합 교직원 연수대회

‘공감유아교육의 실제’ 강연 가져

2014년 어린이집연합 교직원 연수대회가 성주문화예술회관 3층 소강당에서 성주관내 어린이집 교직원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혜 보육발전을 위해 노력한 무궁화어린이집 김학순 원장과 창천어린이집 박경화 조리사,

청운어린이집 박혜선 교사, 수문엘리스어린이집 배준호 원장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연세대학교 권수영 교수를 초청해 공감유아교육의 실제란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성주군 지역 어린이집은 총 21개소로 공립 5개소와 민간10개소, 가정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으며 총 보육아동은 700명에 달하며 종사하는 교직원들은 120여명 정도가 된다.

김경희 기자

칠곡여성단체협, 도 사업평가회 최우수

칠곡군여성단체협의회는 대구 호텔 인터볼고에서 개최된 ‘2014 경북도 여성단체협의회 사업평가회’에서 최우수 활동단체 시군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각 단체 활동내역 및 행사 참가 실적 등 1년간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활동 활성화에 적극 노력한 단체에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칠곡군여성단체협의회는 올해 다문

화가정 친정보내기사업을 통해 1가정의 왕복항공료를 후원했으며, 아동폭력예방캠페인 및 보라데이캠페인, 등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사회 여성활동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높이 평가됐다.

정달분 칠곡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앞으로 회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살기 좋은 칠곡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상철 기자



칠곡군은 29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백선기 칠곡군수와 황석근 경북대학교총장 직무대행, 학교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협약을 체결했다.

칠곡-경북대 향토생활관 협약 체결

지역출신 입학생 편의 제공

칠곡군은 29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백선기 칠곡군수와 황석근 경북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학교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03년과 2005년 이후 세 번째 체결하는 것으로 지역출

신의 경북대 입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타 학교 대비 경쟁률이 높아 10개의 입주권을 추가 확보해 지금까지 총 40개의 입주권을 확보했다.

한편, 칠곡군은 내년 초에 영남대학교 및 경일대학교와 향토생활관 협약을 체결해 각각 10명의 입주권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전상철 기자

칠곡, 도 재난관리 실태점검 ‘우수’

도내 23개 시·군 중 2위 선정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경북도에서 주관하는 ‘2014 재난관리 실태점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 평가는 경북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고 재난발생 시 자율 및 책임행진 강화를 위해 시행됐으며, 지난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개인역량, 재난관리부서 역량, 네트워크 역량, 기관 역량 등 70개 지표에 대해

평가됐다. 군은 기관장관심도, 행·재정적지원,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수립, 무더위 쉼터 점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올해 추진한 재난관리 이행 실태가 전반적으로 우수해 23개 시군 중 2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백선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앞으로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인명을 중시하는 안전한 칠곡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상철 기자

대한씨름협 성적 결산 심사

의성군청씨름단, 최우수 선정

의성군청씨름단(단장 김주수)은 대한씨름협회가 주최·주관하는 2014년도 각종 씨름대회의 성적 결산 심사에서, 일반부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황경목 감독에게는 우수 지도자상이 결정되어, 오는 새해 1월 20일에 서울

올림픽파크텔 시상식에서 수상한다. 씨름의 본고장인 의성군은 지난 1991년도에 실업팀인 군청씨름단을 창단한 이래 23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되어 축제 분위기다.

감독과 선수 9명 중 대다수가 의성출신이며, 의성군 출신 대표 씨름인으로는 이준희·이태현 전하장사가 있으며 이 밖에도 백두·한라장사 등 수많은 씨름인을 배출했다.

신태호 기자

www.saejeomall.com

자연이 숨쉬는 건강식약 청정 문경에서 채우세요

자연을 채워 정성으로 키워낸 문경 특산물!

- 원목재배로 맛과 향이 뛰어난 문경 표고**
천혜의 문경 산신 참나무 권목에서 자란 문경 표고- 깨끗한 자연에서 키워 철저한 품질관리를 더 할 수 있습니다.
-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은 문경 사과**
풍부한 알츠랑, 주야간의 큰 일교차로 더 맛있는 문경 사과- 농약을 줄인 친환경 농법으로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 맛과 건강을 업그레이드시킨 문경 약들한우**
물보화생선이 풍부하며 육질이 연하고 육즙도 넉넉한 약들한우- 푸드랩과 갈비하면서도 건강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약들 사료를 먹여 더 건강한 문경 약들돼지**
우리 품에 이로운 불포화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된 약들돼지- 꿀맛을 갖는 육질, 신맛한 입맛과 더불어 돼지 특유의 냄새가 없습니다.

문경시청 T.054-552-3210, F.054-550-8309 | 친환경농업과 T.054-550-6880 | 유통축산과 T.054-550-6270 | 새재정터 T.054-552-7500, F.054-554-9670

문경시 새재정터 www.saejeomall.com

어려운 농가 지원 쌀·밭 직불금 지급

예천군, 지난해보다 10억원 늘어난 111억원 지급

예천군은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쌀·밭·조건 불리·친환경농업 직불금 112억 원을 확정하고 농가 개별계좌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직접지불금은 지난해 101억 5천1백만 원보다 10억 3천3백만 원이 증가한 111억 8천4백만 원이다.

지난해 대비 직불금 증가의 원인은 쌀직불제 단가 인상과 밭 농업직불제는 올해 신규 지원 대상으로는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을 밭 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신청자 및 면적 모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써 올해 직불금 지급대상은

14,351ha 15,255농가에 총 112억 원을 지급했으며 유형별로 보면 쌀소득보전 8천여 농가 98억 3천만 원, 밭 농업 6천 2백여 농가 9억 원, 조건 불리 8백여 농가 3억 2천만 원, 친환경농업 3백여 농가 1억 5천만 원 등 총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지급했다. 쌀직불제는 1998년부터 2000년 사이는 농업에 이용된 실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조건 이행여부에 따라 지급되며 고정직불금은 ha당 농업진흥지역 97만 원 비농업진흥지역은 72만 7천원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쌀·밭직불제 등이 WTO, FTA 등 대내외적 요인 및 각종 영농 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 농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재철기자

안동시, 우수 농산물 보호·육성

특산품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안동소주 외 63개 품목 선정

안동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 특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9일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특산품지정은 안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임산물류 및 제조 가공품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안동소주 외 63개가 대상품목으로 선정돼 있으며, 현재 안동한지 등 40개 업체, 47개 품목이 특산품으로 지정돼 특산품 지정장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2014년 하반기 특산품 심의위원



회는 대상품목 추가 신청한 'e방앗간의 생들기름'과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을 신규로 신청한 '필창농산 영농조합법인의 마', 금년 31일자로 기간 만료되는 '안동한지' 등 16개 업체의 연장 신청 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특산품으로서의 지정여부와 특산품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윤재철기자

안동시, 동계 수난사고 대비 구조훈련

안동소방서(서장 김규수)는 지난 26일 암산유원지 상류 하천에서 겨울철 얼음지치기 등 수난사고에 대비 동계 수난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안동소방서는 지난 26일 암산유원지 상류 하천에서 겨울철 얼음지치기 등 수난사고에 대비 동계 수난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하천, 저수지 등 각종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대원들은 수중장비를 활용한 요구조자 탐색, 익수자 발생에 따른 응급처치, 인근병원 이송 등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신속한 구조 활동을 통한 인명소생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특히 20kg이상의 장비를 갖추고 2인 1조로 수중로프 전개, 수중탐색 등 잠수적응훈련으로 수난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켰다.

김 서장은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해 한층 더 강화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재철기자

영주시, 한 해 동안 흘린 땀 결실 맺어

지역산업정책대상 등 48개 분야 기관표창 수상

영주시는 올해 중앙부처와 경북도, 외부기관 평가에서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총 48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

한 해 동안 제11회 지역산업정책대상에서 종합대상 수상을 비롯해 48개 부문에서 각종 상을 수상, 상사업비 6천만 원과 시상금 4천 9백만 원을 받았다.

시상 주체별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 장관표창 등 11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외부기관

주관으로는 2014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지방자치부문)을 수상하는 등 10개 분야에서 수상했다.

이외에도 경북도의 시·군 농정평가에서 최우수, 중소기업 육성시책 시군평가 우수상, 투자유치대상 우수상 등 27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상을 수상했다. 올해 수상 내역을 보면, 일자리·투자유치 등 경제분야가 (11)건, 농업분야가 (12)건으로 전체 48건 중 (23)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류효환기자

입산통제 대야산·황장산 탐방로 개방

‘한국의 100대 명산’으로 지정된 대야산(속리산국립공원)과 황장산(월악산국립공원)의 탐방로 정비에 대한 국비가 내년도 국가예산에 확보됨에 따라 그동안 통제되었던 탐방로가 정비를 거쳐 개방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경시 지역의 대야산과 황장산이 국립공원 구역으로 편입되면서 탐방로가 지정되지 않아 산을 찾는 탐방객들로부터 국립공원 출입통제에 따른 민원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분으로 인한 불만으로 관광문경의 이미지가 훼손과 함께 100대 명산의 지정과 단속으로 정책혼선을 불러오고 있었다.

이에 문경시는 대야산과 황장산의 탐방로 개방을 위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수차례 방문해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출신 이한성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하여 탐방로정비를 위한 사업비 20억원을 국비(환경부소관)로 확보했다.

시는 내년도 하반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탐방로 정비 및 지정 절차를 통해 대야산과 황장산의 탐방로가 개방되면 문경의 명산을 찾는 산악인과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세현기자

봉화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NO!

불법엽구 제작·판매·설치, 독극물 살포행위 내년 1월 11일까지 집중단속

봉화군은 29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을 비롯해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설치 또는 독극물 살포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을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직접 포획하는 행위는 물론 불법 포획물을 소지·가공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포획금지 대상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35종과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동물 479종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야생동물이 해당된다. 야생동물 불법포획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야생동물 포획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

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다. 봉화군 밀렵단속뿐만 아니라 울무, 밧, 독극물 등 밀렵도구의 수거 활동과 폭설 등으로 인한 먹이부족 예상지역을 파악, 먹이를 공급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군청 도시환경과(679-640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밀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류효환기자

www.bonghwa.go.kr | 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동력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도시 봉화

청정 봉화와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자란 농특산물을 맛보세요!
산이 많아 나무가 많고, 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봉화! 원예의 천수와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수려한 산세와 맑고 깨끗한 계곡이 태고의 빛과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화군은 풍부한 자연환경으로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더욱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화군



대구지방보훈청은 연말을 맞아 대구보훈병원과 대구보훈요양원에 입원·입소중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을 실시했다.

대구보훈청 “빠른 쾌유를 빕니다”

국가유공자 위문 실시

대구지방보훈청(청장 오진영)은 연말을 맞아 대구보훈병원과 대구보훈요양원에 입원·입소중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을 실시했다. 정부에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입원 중인 분들의 쾌유를 기원하기 위해 해마다 명절과 연말에 국가보훈처장 위문품을 전달하며 위문하고 있다.

이날 오진영 청장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깊은 감사와 조속한 건강 회복을 기원하고, 국가유공자들의 진료와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보살핌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종팔 기자

대구, 동인지하차도 왕복 6차선 우선 개통

교통 적재 해소·보행자 통행 큰 도움

대구시는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구간 건설사업으로 시행한 동인지하차도(신양로)를 30일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동인지하차도는 동인네거리에서 칠성교네거리를 남북 간 연결하는 지하차도로 경부고속 철로변 정비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에서 총 사업비 95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 2009년 6월에 착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개 차로로 축소 운영 중인 도로를 30일 왕복 6차선으로 확장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측면도로 등 부대사업은 2015년 4월 완료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주변 칠성시장 상가 및 도시철도 1호선 칠성시장역 주변 이용객 등 보행자와 차량 등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차량정체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구간으로 도로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인근 교통소통 및 보행자 통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행지하차도와 원대지하차도 개통에 이어 이번에 동인지하차도도 확장 개통함에 따라 그동안 정체됐던 남북 교통이 원활해져 교통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에 비산, 신암지하차도를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에 있다.



대구시는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구간 건설사업으로 시행한 동인지하차도를 30일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정에 있다.

대구시 안전민 건설본부장은 “앞으로 남은 지하차도 확장공사도 안전하

게 조속히 완료해 시민불편 해소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환 기자

나트륨 걱정 없는 건강 외식 환경 ‘OK’

대구, 나트륨 줄이기 실천 건강음식점 지정

대구시는 나트륨 걱정 없는 건강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염 메뉴 제공이 가능한 11개 음식점을 나트륨 줄이기 실천 건강음식점으로 지정했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 건강음식점은 판매량이 많은 인기 메뉴의 나트륨 함량을 기존보다 20% 이상 줄인 저염 메뉴 제공이 가능한 음식점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부터 경북대학교(식품영양학과)와 협력하여 나트륨 저감사업 참여 희망 음식점 20개소를 선정하고, 저염 대상 메뉴에 대하여 기존의 음식 맛은 유지하면서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저염 조리법을 기

술지도하고 모니터링을 반복하는 저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20개 음식점 중에서 들깨가루로 소금의 사용량을 줄여 나트륨 저감 효과를 보인 동구에 소재한 명산식당을 비롯한 11개 음식점을 최종 나트륨 줄이기 실천 건강음식점으로 최종 선정했다.

대구시는 이들 음식점의 저염식이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활성화되어 음식점소 나트륨 줄이기 실천 분위기 확산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저염화를 유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환 기자

대구시 모범수급권자 선정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긍심 고취

대구시는 30일에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중 전년 대비 의료비 등을 크게 절감한 ‘모범수급권자’ 31명을 선정해 인센티브 물품을 제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스스로 건강 관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모범수급권자 인센티브제’는 대구시 의료급여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질환에 비해 의료급여를 많이 이용하는 고위험 사례관리 대상자 중 의료급여

관리사의 서신, 전화상담, 가정방문을 통해 의료이용 행태 개선으로 건강 향상과 의료비 등을 크게 절감한(수술비 제외)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구·군별 수급자 수 등을 고려해 구·군 추천을 통해 31명을 선정했다.

30일에도 홍보물품을 구·군 관계자에게 배부하고, 평소 이들에게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군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모범 수급권자를 개별 방문해 물품을 제공하고 이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이종환 기자

의료기사 국가고시, 전국 수석·차석 ‘동시 배출’

대구보건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총장 남성희)가 한국보건직업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한 2014년 의료기사 국가고시에서 전국수석과 차석을 동시에 배출했다.

주인공은 이 대학교 임상병리과 3학년 이경환(23)씨와 안경광학과 3학년 이근영(26)씨다.

이경환 씨는 전국 2,949명이 응시해 2,184명이 합격한(합격률 74.1%) 제 42회 임상병리사 시험에서 280점 만점에 274점으로 수석을 차지했다.

이근영 씨는 전국 2,198명이 응시해 1,674명이 합격한(합격률 76.2%) 제 27회 안경사 시험에서 250점 만점에 246점을 받아 차석을 차지했다.

이 두 사람의 학교 성적은 졸업평점 4.5점 만점에 4.42점과 4.46점을 받아 각각 학과 수석을 차지했으며 교수가 되어 제자를 양성하고 싶다는 목표도 같이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국사에서 수석을 노려보자는 교수님의 제안에 한번 해보고자 결심한 이 씨는 시험 3개월 전부터 매일 15시간 이상 공부에 매달려 수석을 차지했다.

학과와 국가고시 동시 수석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이 씨는 2차 목표를 수도권 대형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취업하는 것으로 잡았다.



사진 왼쪽부터 임상병리사 수석 이경환 씨, 안경사 차석 이근영씨가 대학교정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이경환 씨는 “정확한 검사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로 성장한 뒤 교수가 되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이근영 씨는 울산의 4년제 대학(울산대 수학과)을 중퇴하고 창원의 꿈을 따라 대구보건대학교에 진학했다.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학교홍보대사, 학과 대표, 학업멘토 활동 등 학교 생활도 뛰어났다.

국시대비 수차례 모의고사 성적이 만점으로 주위에서 수석합격의 기대를 받았으나 1점차로 아쉽게 차석을 차지했다.

졸업 후 공부와 일을 병행할 계획을 세웠다는 이 씨는 “국시는 차석이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1등으로 달려가고 1등을 갈러내는 멋진 멘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병리과 학과장 박철인(49) 교수는 “국시대비 특강, 학생과 일대일상담, 격려 등 우리대학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석을 배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대구보건대학교는 올해 임상병리사 수석 이외에 2012년 치과위생사, 2011년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2009년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등 최근 6년간 6명의 국가고시 전국수석을 배출했다.

이종팔 기자

청소년 멘토에 디지스트 나서 겨울방학기간 교육기부 실시

디지스트(DGIST, 총장 신성철)는 기초학부 학생 20명이 이번 겨울방학기간 동안 달성군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기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디지스트는 지난 4일 대구시의 ‘대구 징검다리 아카데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 대구 징검다리 아카데미 사업은 대구시가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취약계층 중학생에게 학습 지도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디지스트를 비롯한 경북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참가한다.

징검다리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디지스트 학부생들은 지난 28일 멘토로서의 기본 소양 및 책임감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았으며, 방학기간 동안 학습 지도와 대학탐방, 문화체험 등 멘토링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디지스트 학부생들은 내년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논공중학교 및 북동중학교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한 그룹당 5명으로 구성해 하루 2시간씩 주 4일에 걸쳐 수학, 영어 등 주요 과목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스트 탐방을 통해 평소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던 디지스트 대학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 및 미래 설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팔 기자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꿈
농협이 함께 꾸는 꿈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새로운 농협이 언제나 당신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의 가치 NH 농협

뛰어난 당도에 쫄깃한 '풍천곶감'

안동 전통방식 생산으로 농가소득 기여 '효자품목' 자리매김

안동시 풍천면 신성·구호리에서는 요즘 올 한해 정성을 들여 생산한 곶감 출하가 한창이다.

전통방식을 고집해 생산한 곶감 판매로 농가소득은 물론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이제는 유명세까지 톡톡히 타고 있다.

안동곶감작목회(회장 김태식)에 속한 29농가에서 감이 흉년이던 지난해 5억여 원의 소득을 올려 농한기 소득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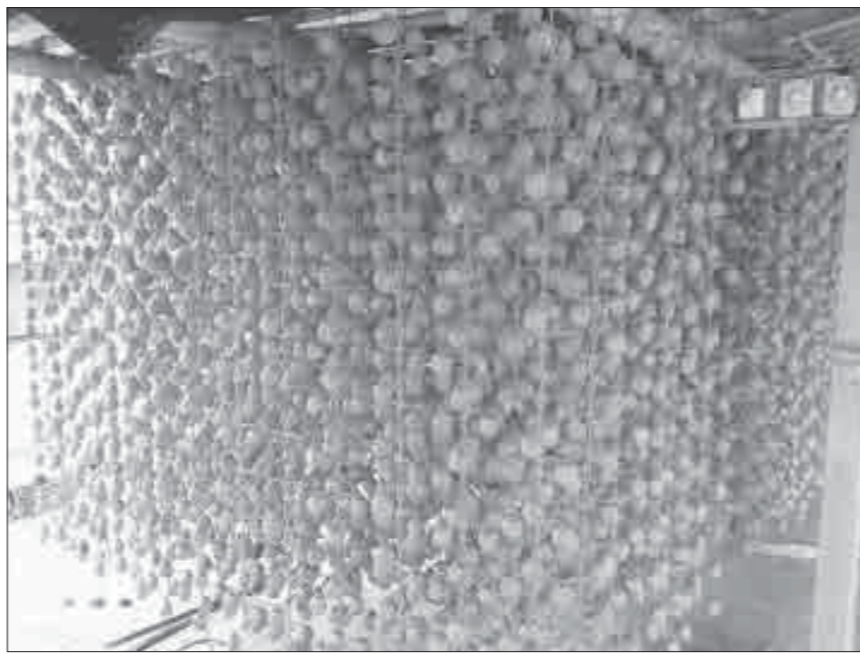
또한 한국임업진흥원의 공식블로그에 풍천곶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동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해갈 일만 남은 듯도 하다.

안동곶감작목회 김 회장은 "신성·구호리 마을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곶감은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기르진 토

양과 북서쪽이 긴 산으로 둘러져있는 천혜의 청정지역에서 조상대대로 재배해온 수령이 백년에서 많게는 백년이 훨씬 넘는 토종감나무에서 육질이 좋은 감이 대부분 생산된다."고 말했다.

또한 풍천곶감은 45일에서 60일간 덕장에서 자연건조하고 15일에서 20일 정도 후숙건조·숙성하는 과정은 선조 대부터 전수받은 안동지역만의 오랜 전통적 방식으로 요즘은 현대적 시설을 접목시켜 흰 천연당분이 표면에 나와 과육이 쫄깃쫄깃하고 질감이 부드러우며 씨앗이 적고 당도가 타 지역 곶감보다 높은 전통곶감의 특징이 있어 제수용은 물론 선물용으로 고급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지역 곶감은 오선당곶감, 안동신성세미곶감, 오페미곶감, 상도곶감, 안동신성큰곶감, 탐마을진곶감, 안동



하회마을곶감 등의 브랜드로 직거래 판매되고 있으며, 사이버안동장터(<http://www.andongjang.com>)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동까지 하고 있다. 윤재철 기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영일만 친구'

포항시, 상표사용자 신규업체 지정·기간연장 심의회

포항시가 29일 소회의실에서 '2014년 제2회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회(위원장 김재홍 포항시부시장)'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영일만 친구' 상표사용 신규지정과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법정 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상표사용 신청자에 대한 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여건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의 현지방문 및 현물 심사를 실시한 결과 농부들이 직접 생산한플레인 요구르트를 출품한 '기북농촌체험 영농조합법인'과 유기농산물로 인증된 블루베리를 음료로 가공해 출품한 '포항블루베리농원' 등 2개 업체가 신규 지정됐다.

또한 기존 상표사용자인 윤선애 선인장, RG바이오, 포항죽장오가피 영농조합, 포항구룡포과메기사업조합,

(사)포항물회연합회, 장기농협, 오천농협 및 구룡포수협 등 8개 업체는 앞으로 2년간 사용기간을 연장승인 받았다. 이로써 포항 대표 먹거리 '영일만 친구' 상표사용자는 축협(한우), 서포항·흥해·남포항·신포항농협(쌀과 농산물), 연일형산부추작목반(부추), 죽장 두마오가피, 경상도강정과 비학산한과(한과), 청하에그린(달걀), 정원 FNF(과메기)와 성호물산(건오징어), 해맞이빵, 범촌식품(장아찌), 영농조합법인 이도(한방발효차), 청계농원(박경동 사과), 해풍명가(된장), 햄살마루농식품(조청), 동호성계된장, 죽장연, 연담한과, 하사리농산(장류), 포항친환경농업인 영농조합법인(채소, 과일 등), 대한노년봉사회(멸치가루, 표고가루), 효정전통한과(한과류) 등 44개 업체 및 단체로 늘어났다.

차동욱 기자



문경시, 명품 교육도시 건설 머리 맞대다

'문경지역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현낙길)은 29일 문경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14년 문경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 현낙길 교육장은 "가은 중·고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공사, 점촌공공도서관 증축 공사, 호서남초 담장정비 사업, 문경중조례대 및 소운동장 공사,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지원, 특성화학교 육성 지

원, 읍·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 친환경쌀 및 우수농축산물 지원 등 약 32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고운한 문경시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도 문경시와 교육지원청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운한 시장은 "'좋은 생각 소중한 사람'을 슬로건으로 문경교육의 멈춤 없는 발전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아울러 빼어난

결과를 거두고 있는 현낙길 교육장 및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문경시에서도 명품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2015년도에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여기에 참석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문경시가 총력을 기울여 준비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다방면에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김세현 기자

올해 자체감사활동 종합평가 영천시, '최우수 기관' 선정

영천시가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자체감사활동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9일 표창패와 함께 시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영천시는 심사 항목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자체감사활동 분야와 부패방지 시책추진 분야에 걸쳐 우수함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감사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체계를 혁신해 분청 특정업무 분야별 감사를 수행해 왔으며, 다양한 자체감사활동을 위해 매회 다른 접근방식으로의 감사역량을 강화해 업무의 적법성 확보와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자체감사활동 실시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오고 있다.

김영석 시장은 "이번 기관표창은 예방 감사를 통한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감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공정하고 청렴한 영천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해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영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



'인성 중심·과정 중심' 교실문화 만든다

봉화교육청, 수학 스토리텔링·교수·학습 자료 활용 연수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조시박)은 지난 24일 초등학교 교사 27명을 대상으로 '수학 스토리텔링 및 인성교육중심수업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 활용 연수'를 개최했다.

이 연수회는 중앙 연수를 다녀온 핵심요원의 전달연수로 교사의 수업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연수에서 소천초 강명무 교사는 수학선진화방안으로 도입된 스토리텔링이 교과 안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사례와 지난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생활 속 Fun한 수학'의 의미

를 학생들 경험 속에서 접근하도록 소개했다.

인성교육중심수업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 활용 연수는 분연의 수업목표와 인성함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인성교육중심 수업 전략이 필요하며 교과별 인성요소와 개발 자료 목록을 소개했다.

연수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개발된 인성중심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하고 과정 중심의 교실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효환 기자

Xes Gum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

퀴미시

‘미술관 음악회’로 올 한해 마무리하세요

포항시립미술관-예술단, 31일 시립미술관 로비서 연주회 개최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정기 진행, 시민 무료 관람

포항시립미술관과 포항시립예술단 (단장 김재홍 포항시부시장)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12월 미술관 음악회 'Museum & Music'을 31일 포항시립미술관 로비에서 개최한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바하의 첼로 무반주 조곡, 차이코프스키의 야상곡, 멘델스존의 무언가, 드뷔시의 곡들이 연주되며 모든 곡은 포항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을 수 있다.

음악회는 바하(Johann Sebastian Bach)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으로 시

작한다.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프랑스, 이탈리아 음악의 새로운 양식과 여러 민속 음악적 요소들이 음악사상 가장 위대한 '종합예술가'로 일컬어지는 바하를 통해 독일의 음악적 전통과 아우러지고 여기에 종교적 경건함마저 스며들어 음악사에 길이 남아 '성전(聖典)'으로 불리는 최고의 내용과 절대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다.

'첼로 무반주 조곡 1번 사장조 BWV 1007'은 즉흥적 요소가 강한 프렐류드(Prelude; 전주곡)를 시작으로 춤 곡 부분인 알망드(Allemande), 쿠랑트



이윤희-피아노

(Courante), 사라방드(Sarabande)로 이어지며 1, 2미뉴엣(Menuett),

그리고 마지막 곡인 지그(Gigue)로 매듭지어져 있다.

또한, 고요한 밤의 정취를 노래한 차이코프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의 '야상곡 Op.19 No. 4'은 애조 띤 음으로 겨울밤에 어울리는 곡이다. 이어서 차이코프스키의 '우울한 왈츠'(Valse Sentimentale Opus 51, No. 6)가 연주되고, 드뷔시의 '아름다운 저녁'(Beau soir)과 '로망스'(Romances)로 한 해의 음악회가 마감된다.

한편 미술관 음악회 'MUSEUM & MUSIC'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오전 11시 시립미술관 로비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손상욱기자



제26회 신라문학대상 수상자들(가운데 박은후씨, 전영임씨, 김선영씨, 박용우씨)과 경주문학협회원, 최양식 경주시장.

소설 박은후·시 박용우·수필 전영임·시조 김선영씨

제26회 신라문학대상 수상자 시상

제26회 신라문학대상(위원장 최양식)시상식이 지난 27일 경주 The-K호텔에서 최양식 경주시장, 이진락 도의원, 한순희 시의원, 신라문학대상위원, 경주문학협회 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신라문학대상은 올해로 스물여섯번째 문학인재를 배출하게 되었다"며 한국문단의 권위 있는 등용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소설부문 수상자는 경남 함천군 박은후(58)씨, 시부문은 경남 김해시 박용우(45)씨, 수필부문은 경북 영주시 전영임(49)씨, 시조부문은 전남 담양군 김선영(46)씨가 각각 수상을 했다.

소설부문 당선작인 박은후씨의 '탈란시아에 길들이기'는 해외 이민자들의 애환과 삶의 무늬를 섬세하고 절실하게 그려나간 작품이다.

'탈란시아'는 흙이 아니라 공기 중에 생장하는 특이한 식물로 캐나다 영주권자로 오랜 시간 해외 이민자의 생활을 한 박 씨의 경험을 작품에 오롯이 담아냈다. 이날심사는 정종명, 서동훈, 유익서씨가 맡았다.

시부문 당선작인 박용우씨의 '움직이는 마에석불'은 경주남산에 있는 마

에석불을 주제로 쓴 시로 역사를 바라보는 예리한 눈과 치열한 시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심사는 김종해, 신규호, 허형만씨가 맡았다.

수필부문 당선작인 전영임씨의 '갈목비'는 소재가 매우 참신하고 화자의 중심사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보잘 것없는 빗자루에 가난한 아버지의 정성과 공이 들어 있는 예술품으로 우울과 가족들에게 은경을 베푸는 장면은 감동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는 도창희, 구활씨가 맡았다.

시조부문 당선작인 김선영씨의 '마음의 서랍'은 시적 향기를 물씬 풍기는 제목에 걸맞게 화려하지 않지만 잔잔한 목소리로 풀어나간 서정이 빼어난 작품으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다. 심사는 조동화, 박시교씨가 맡았다. 올해 신라문학대상에는 시부문과 시조부문에 400여편, 수필부문에 200여편, 소설부문에 20여편의 작품이 응모했다. 소설부문 당선자에게는 은 1000만원이, 시부문 당선자에게는 600만원, 수필과 시조부문은 각각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당선작은 월간 문학 내년도 2월호에 실린다. 당선자들은 기성문인의 자격이 부여된다.

이인호기자

을미년 새해, 호미곶에서 'Happy Together'

한민족해맞이축전 공연·체험
관광객에 풍성한 볼거리 마련
새해 떡국 시식행사도 병행

오는 31일부터 새해 1월 1일까지 호미곶 해맞이광장에서 개최되는 '제17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은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과 체험행사로 밤새 지루하지 않게 즐기다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31일 저녁 7시부터 '길놀이 패지신밧기'로 시작되고 짧은 예술가들이 관객과 소통하며 아우러지는 '국악 얼썩콘서트'가 1시간동안 펼쳐진다.

이후 저녁 8시 40분부터는 관객들의 즉석 신청사연을 접수 받아 소개하고 신청곡을 라이브연주와 노래로 보내드리는 달빛공감음악회가 열리며 비보이팝댄스, 김죽염무용단 공연, 탭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춤판과 지역축제 경연대회 수상팀들의 퍼레이드 축하공연 무대가 펼쳐져 관객들의 흥을 돋운다.

저녁 11시 50분부터는 관람객 모두와 함께 자정 카운트다운을 외치면서 저마다의 새해 소원을 풍선에 적어 하늘로 띄워 보내는 'Happy Together Ball'에 이어 새천년기념관 벽면을 활



용한 '창조도시 포항'과 'KTX 포항시대'의 특별 주제 영상 레이저쇼와 뮤직불꽃쇼가 화려하게 펼쳐져 새해를 맞이하는 환희와 기쁨을 관객들과 함께 한다.

이어 LED 빛 퍼포먼스와 DJ와 춤꾼이 함께하는 호미곶 춤판이 새벽 1시까지 벌어지고, 새벽 3시까지 달빛시네마를 운영하여 밤을 새는 관광객들이 지루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1월 1일 새해 아침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아침 7시부터 남상 4층창의 가곡과 대북공연으로 을미년의 첫 새벽 여명을 깨우고, 호미곶 일출을 주제로 한 저명한 정일근 시인(경남대교수)의 신년창작시 낭송으로 새해를

영접하게 된다. 드디어 기다리던 장엄한 일출이 호미곶 앞바다 수평선에 솟아 오르면서 해군 6전단의 헬기 4대가 창공을 선회하며 축하비행을 펼치는 장관을 연출하여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어서 국내 최초 초대형 '거꾸로 가는 시계'가 제막과 함께 첫 선을 보이며, 8시부터는 인기 개그맨 김원효와 함께 호미곶 광장에 'KTX' 글자를 모자이크하며 아리랑 셔플댄스를 주는 즐거운 경험과 관광객들에게 나누어주는 새해 떡국 한 그릇을 맛보며 출출함도 달랠 수 있다.

이밖에도 호미곶 광장을 가로지르는 가로등에 호미곶과 일출을 소재로

한 타임들이 적힌 가로현수막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이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조용히 사색하면서 되돌아 볼 수 있는 사색의 거리와 한 해를 돌아보며 본인에게 소원을 적어 보관하는 호미곶 소망단지, 새해 가훈쭈주기와 재미로 한 해 타로점을 보는 '마리보는 2015', 양피해를 맞아 양 비누공예와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호미곶 놀이터', 호미곶 배경의 사진 업서를 즉석에서 촬영 인화하는 '호미곶 포토존', 방문객들에게 나눠주는 '군고구마·군밤체험' 등 체험행사와 과메기 등 호미곶 특산물과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도 푸짐하게 준비돼 있다.

차동욱기자

문경 영강문화센터 공연예술단 송년 위문공연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공연예술단 (단장 이세환)은 지난 27일 오후 3시 문경시 마성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미오림복지재단 북마을에서 송년 위문공연을 펼쳤다.

이날 북마을 2층 공연장에는 90여명의 입소 어르신과 그 가족 및 요양보호사 등 200여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르신들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가요, 민요, 한국무용, 하모니카, 색소폰 연주 등 20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영강문화센터 공연예술단은 매월 2회씩 4개소의 요양시설을 찾아다니며 공연 봉사활동을 펼쳐 왔으며 지역 주요 행사의 식전 공연을 맡아 개막식장을 화려하게 빛내주고 있다.

고요한 시장은 60세 이상의 회원들로 구성된 영강문화센터 공연예술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세현기자

울진! 생태 문화 관광도시

동해의 맑고 푸른바다와 친환경의 고장!

인간의 손길을 거부하고 곳곳마다 원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울진, 유명계곡과 밭길 닿는 곳마다 관광명소가 산재하여 뚝딱딱딱의 발걸음을 멈추게하는 천혜의 관광지가 바로 울진입니다.

울진문화관광, 054-250-1111, 울진관광청

http://tour.uljin.go.kr

울진군 ULSAN GUN

생명문화의 수도 성주... 선진 도농복합도시로 '우뚛'

**김향곤 군수 “올 한해 군민 모두 한마음으로 어려움 극복” 회고
참의 조수익 4천억·역대농가 1000호 육박... 명품참외 기상 공고
성주일반산업단지 성공적 분양 ‘기업하기 좋은 도농복합도시’ 조성
군민 상생과 협력으로 지역 번영·발전 및 미래 지향**

성주군의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돌아보고 2015년 올미년 새해의 대계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김향곤 성주군수(사진)는 2014년을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우리에게 직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성주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친 한해였다고 회고했다.

소비위축과 경기침체 등 어려워진 국내 여건 속에서도 참외 조수의 4,000억, 역대농가 1,000호 육박으로 명품참외의 기상을 공고히 하였고 성주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분양·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농복합도시, 성주’로 새롭게 도약하였다.

▲2014년 군민속으로 녹아든 성주군 행정

1. 군민체육센터 건립
-개장 : '14. 7. 15

7월 15일 그토록 염원하여왔던 성주 군민체육센터가 개장되었다. 이는 생활속의 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건강증진을 꾀하기 위한 성주군민 모두의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숙원의 해소였다.

체육센터는 6레인의 수영장과 헬스장 등을 갖추었으며 월회원 3,000명 정도에 일일입장 8,000명에 이를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2.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개장
-개장 : '14. 7. 10

금수면 봉두리 일대의 천혜의 독용산성 자연경관과 성주호를 활용한 자연휴양림이 개장되어 관광객 유치와 새로운 서부권 관광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은 등산과 물놀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타 휴양림과 차별을 꾀하였으며, 개장한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4,000여명이 이용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성주군은 이를 바탕으로 서부권 관광벨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

3. 액비 자원화 사업

성주는 명품참외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참외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액비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참외발효액 액비제품화 연구와 함께 시범농가의 공급을 통해 현실화 된 액비자원화는 추후 맞춤형액비의 개발공급과 함께 확장형 산업 원료물질 개발 등 고부가가치 자원순환형 모델개발을 검토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4. 시가지 재해대책 추진과 교통인프라 구축

더 이상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고 살기좋은 성주건설을 위한 시가지 재해대책으로 성주읍 빗물 배수펌프장 증설·시연('14.7.5)과 우수관 거개선(5.44km)을 통해 폭우로 인한 시가지 침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또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국도30호선

입체교차로 설치공사를 확정(완공 2020년 예정) 지었으며 성주대교를 신설하기 위한 국비 50억을 확보하는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다.

5. 클린성주 제2의 도약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국최초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8대 전략사업을 발굴하였다.

8월부터 11월까지 약4개월에 걸친 찾아가는 클린성주 마을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깨끗한 들녘 및 마을가꾸기를 위한 생활속 실천방법 등의 등을 통한 환경의식 선진화를 이루고 성주읍 중심지 활력화 핵심사업, 선남면 도흥권역 종합개발사업 등 추진을 통해 지역맞춤 특화전략을 실천하였다.

6. 성공적 산업단지 추진

1차 산업단지에 이어 29만평 규모의 성주2일반산업단지 마저도 100%분양을 끝마쳤다.

성주2일반산업단지는 이미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산업용지 대비 74%가 선분양 되었으며 지난 11월 일반 분양신청 100% 완료되었다.

이는 취약한 산업구조의 개편과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등 도농복합형 도시로의 완전한 정착을 이끌고 있으며, 3차 산단추진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7. 별고을 교육원 준공

- 지난 1월 교육복지를 향한 김향곤 성주군수의 의지가 확인되는 별고을 교육원이 준공되어 운영되었다. 3월3일 개원한 교육원은 123명(중학생 61명, 고등학생 62명)의 학생을 12명의 강사가 전담으로 지도하여 2015년 대학입시 수도권 및 명문대 합격자 23명을 배출하며 지역엘리트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였다.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과 욕심이 많은 김향곤 군수는 여기서 만족하지도 멈추지도 않는다. 군정성과의 자신감과 더 큰 목표를 향한 열정을 더하여 새해 군 역점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015년 성주군 백년대계를 위한 역점추진 과제

1. 지역농업의 새로운 혁신

전국참외 생산량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성주군의 참외사업은 낙동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며 성주군을 지탱하는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참외산업 뿐 아니라 농업작물의 다변화를 통해 한번 더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소득원의 다변화, 보완작물의 개발을 통해 다양한 대응전략으로 기후불순과

함께 찾아온 작황불량의 위기를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2. 체감경제, 공감경제, 희망경제 실현
군민 모두가 체감하고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산업·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1·2차 산업단지의 성공분양을 바탕으로 취약한 산업구조의 개편 및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등 도농복합형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3차산업 단지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인구유입은 물론 일자리 창출, 안정적 세수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또한, 성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마무리와 일요장터 운영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인근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불씨를 살린다는 구상이다.

3. 세계 생명문화의 수도 성주, 생명의 성지 마케팅

미래전략10대과제 개발과 경북 30대 미래전략 과제와의 연계를 통해 세종대왕 자태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아기별궁, 생명관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명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

또한 성주 가야산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야산국립공원 탐방로의 추가개방, 오토캠핑장 설치,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 조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야산과 포천계곡, 성주호를 잇는 성주 서부권 관광의 핵심벨트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4. 진심과 정성을 다하는 맞춤형 희망복지

지역 엘리트 교육의 메카 별고을 교육원의 운영활성화와 획기적인 별고을 장학기금 조성으로 체감되는 교육복지와 더불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이동복지관 운영확대, 자활근로 사업 운영지원 강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각계 각층 지역 곳곳으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파스한 손길을 뻗어 복지도시 성주를 이룩할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5. 안전과 희망이 꽃피는 도시인프라 재창조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소화전 정비종합계획 관련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하수도 및 우수관로의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시가지 재해대책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에 이어, 우수관로의 통수능력 향상을 위해 성주읍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하수관로 정비, 성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해위험지구인 성주읍 시가지를 항구적인 안전도시로 탈바꿈 시킬 것이다.

2015년은 성주군의 새로운 백년을 여는 첫걸음이자 밑거름이 될 것이며 농업뿐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도농복합도시 성주의 완전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김향곤 성주군수는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모두가 상생과 협력하여 새로운 성주의 신화가 창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새롭게 도약하는 성주의 미래는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이름없는 기부천사, 겨울 한파 녹였다

영천 화산면에 2년째 '라면 90박스 기부' 훈훈한 감동 선사

한파가 몰아치는 연말에 자신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익명의 기부자가 화산면사무소에 라면 90박스를 보내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화산면에 따르면 지난 15일 익명의 기부자가 찾아와 지역의 어려운 세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저소득층이 몇 세대 정도 되는 지를 묻고는 19일 라면 90박스를 보내왔다.

익명의 기부천사는 화산면에 오랫동안 거주해 온 주민으로 작년에 라면 200박스와 가래떡10말을 기부하였으며, 조용하게 이웃을 돕고 싶다는 반드시 익명을 유지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손동열 화산면장은 "기탁된 라면을 기부자의 뜻에 따라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



안동 상락장학회, 장학생 16명에 장학금 수여

(재)상락장학회가 수여하는 장학금 수여식이 29일 오전 10시30분 안동병원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강보영 이사를 비롯해 장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14학년도 상락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모두 16명으로, 총 장학금 지급액은 9백5십만원이며, 안동대학교 신소재공학부 황훈식 학생을 비롯해 대학생 3명에게 각 1백만 원을 수여하고, 안동고등학교 김승우 학생을 비롯한 고교생 13명에게 5십만 원씩 장학금을 수여했다. 윤재철 기자



영주시 석용수 국장·녹색환경과, 장학금 100만원기탁

석용수(59) 영주시 지역개발국장과 시 녹색환경과는 지난 24일 각각 사비 1백만원과 시상금 1백만원을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장옥현)에 기탁했다.

석용수 국장은 "지역발전의 초석인 인재육성에 적극 동참, 영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는

데 보탬이 되어 기쁘다며 평소 나눔을 실천하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녹색환경과장은 "우리가 평가에서 수상한 시상금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힘을 보탬 수 있어 마음이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류효환 기자



영천시 회계정보과, 연말 함께 하는 나눔봉사실천

영천시 회계정보과(과장 김종열)는 지난 26일 교촌동 무료급식소 나눔의 집에서 150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해 자정면 급식 봉사로 따스한 연말보내기에 앞장섰다. 나눔의 집은 지난 2006년부터 매 주 화·금요일 점심 무료급식을 하는 봉사모임으로, 지난 4월에는 세마

을체육관에서 스타빌리지 2호사업을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회계정보과 직원들은 연말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에서, 준비한 자장면을 요리해 함께 먹고 설거지와 청소를 하며 시민들과 소통으로 정을 나눴다. 박삼진 기자



포항시 환경관리과, 지역인재육성 장학기금 전달

포항시 환경관리과가 지난 22일 지역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기금은 '2014년 그린스타트 운동 실천 시군 평가 보고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받은 시상금으로 마련됐다. 포항시 신기익 환경관리과장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받은 시상금을 뜻

깊게 사용하자는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장학기금으로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환경관리과는 지구의 날 체험 행사, 승용차 없는 날 등을 적극 추진해 '2014 그린스타트 운동 실천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차동욱 기자



문경시 산양면 청년회, '사랑의 국수 나눔' 봉사

문경시 산양면 청년회(회장 양재성)는 지난 28일 지역 30여개 마을에 쌓여 있는 영농 폐비닐, 농약빈병 등을 수거하는 깨끗한 문경 만들기 및 사랑의 국수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각 마을 영농폐비닐 등을 수거하고 30여개 마을회관에 국수와 돼지

고기를 전달했다. 양재성 청년회장은 "봉사활동은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열린 뜻 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도움의 손길을 펼칠 것이며, 작은 정성이지만 마을 어르신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한다."고 했다. 김세현 기자



영천상수도사업소, 자매마을서 봉사활동 펼쳐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직원 20여명은 연말을 맞아 지난 26일 자매결연마을 자양면 용화리 홀몸 어르신 등 온정이 필요한 다섯 세대를 방문해 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생필품을 전달하고, 집안 꾸밈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또 어르신들의 생활에 불편사항이

있는지를 경청하는 등 잠시나마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따뜻하고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

이광태 용화리장은 연말 바쁜 가운데 공무원들이 소외된 세대를 방문하여 위로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박삼진 기자



경산시, '할매·할배의 날' 양로시설과 결연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7일 '12월 할매·할배의 날'을 맞이하여 경산양로원(남산면 전지리 소재)에서 입소어르신과 남산초등학교 학부모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로시설 결연사업』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산시와 경산양로원

(대표 백년옥), 남산초등학교(교장 이숙현)간 결연으로 효(孝)를 장려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 확산으로 세대간 소통과 삶의 지혜를 배우고 양로시설과 학교 간의 결연사업을 통해 결손가족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인호 기자



영천시, '할매·할배의 날' 경로당 결연사업추진

영천시는 12월 할매·할배의 날을 맞아 효(孝)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7일 야사주공4차경로당에서 야사주공4차 경로당과 참빛어린이집간 결연식을 가졌다.

이날 결연식에는 경로당회원과 보육시설관계자 및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연사업 취지설명에 이

여 결연증서를 교환했다. 이날 결연으로 참빛어린이집(원장 안미경)은 매월 1회정도 원생들이 어르신들을 찾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야사주공4차경로당(회장 최해수)에서는 원생들이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노력키로 했다. 박삼진 기자



포항교육청,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위문품 전달

포항교육지원청 이경희 교육장이 29일 포항시 창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했다.

포항교육청은 부서별 나눔 문화 확산과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 주고자 직원들의 정성으

로 준비한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이 교육장은 "이번 위문품 전달을 통해 연말연시를 앞두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직원들 또한 주변을 돌아보고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자"고 말했다. 손상욱 기자

장상문 대구보건대 대외부총장 '교육부장관 표창'

대구보건대학교 장상문(58.호텔의식산업학부교수.사진) 대외부총장은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전문대학 재학생 독일 합부르크 고등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전문대학의 글로벌 역량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근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장 부총장은 이밖에 산업통상부의 1단계 치과기공 산업 수출 플랫폼 조성사업과 2단계 덴탈 소재 및 치과기공 기술개발 사업 등을 유치함으로써 대구광역시와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이바지했으며 소속대학이 중소기업청 3년 연속 최우수등급 획득, 2014기술혁신대전 국무총리 기관



상을 수상하는데도 기여했다. 이종필 기자

포항시, 평생학습도시 위상 드높여 경북도 평생교육 시군 평가 '우수상' 수상

포항시가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경상북도 평생교육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이번 평가는 평생학습조례 제정, 평생교육 추진 전담조직·기구 운영,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장의 관심도 등 경북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우수한 시책을 추진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포항시는 지난해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도내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수상하면서 그 동안의 노력에 결실을 맺었다.

시는 '시민이 행복한 창조학습도시 포항'을 비전으로 읍면동 평생학습, 시민교양대학 개최,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일월아카데미,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평생교육 전문직(평생교육사) 채용,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마을평생교육 활성화 등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민선 6기 이강덕 시장의 취임 이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등 기관장의 관심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차동욱 기자

새마을체육과, 행복을 전하는 산타로 변신

영천시 서문지역아동센터서 2014 나눔봉사활동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영천시 교촌동 서문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산타할아버지를 맞이하는 인사가 장박으로 넘쳐났다.

지난 23일 2014년을 마무리하는 새마을체육과 직원들이 산타로 분장하고 서문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아이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나눔봉사활동에 아이들이 신이났다.

서문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맡아 방과 후 생활 지도와 학습지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돌보아 오고 있다.

새마을체육과 직원일동은 행복을 전하는 산타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손거울 만들기를 하며 준비한 간식을 먹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말선 센터장은 “산타할아버지가 직접 찾아와 선물도 주고 아이들에게 즐거운 하루였어요. 우리 주변에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요. 앞으로도 시청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이상득 새마을체육과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되려 제가 행복을 선물로 받았습시다” 또한 “어려분들과 함께



지난 23일 2014년을 마무리하는 새마을체육과 직원들이 산타로 분장하고 서문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아이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나눔봉사활동에 아이들이 신이났다.

뜻 깊은 송년회를 하게 되어 기쁘게 노력하겠습니다”며 포부를 전했다. 내년 올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더불어 잘 사는 행복영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며 포부를 전했다. 박삼진 기자

한국BBS 성주지회, 하반기 장학금 전달

결연청소년과 송년회 가져

한국BBS 경북연맹 성주지회(지회장 강만수)는 혜성관식당에서 결연청소년과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하반기 장학금 전달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홍진호 결연학생의 14명에게 총 2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2014년도 송년의 밤을 결연청소년들과 함께 가졌다.

BBS성주지회는 장학사업으로 지난 1991년부터 매년 결연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올해 하반기까지 770여명에게 총 1억6000여 만원이 지급됐다.

강만수 회장은 “결연청소년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경주시 인사

△감사담당관 최해열, △기업지원과장 최병식, △의회사무국 김영태, △보건행정과장 정종호, △사적관리과장 최재일, △시립도서관장 정숙자,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고현벽, △감포읍장 권순복, △강동면장 한영익,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최병한, △미래사업추진단장 한진익, △관광컨벤션과장 이상영, △해양수산과장

공진운, △산림경영과장 권영만, △건축과장 박순갑, △안전재난과장 박수현, 토지정보과장 손은락, △복지정책과장 박현숙, △시민위생과장 송명문, 회계과장 김진홍, △정보통신과장 정희탄, 상수도과장 한교식,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경구, △외동읍장 이동희, 양북면장 이경익, △내남면장 권상태, 서면장 김윤규, △천북면장 서기태

동정

△최양식 경주시장은 30일 국도 4호선(경주~감포) '국도건설 준공식'에 참석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30일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열리는 '2014 포항구룡포과메기 겨울바다축제'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과메기 등 포항의 겨울특산물 홍보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30일 지역사회복지시설인 마야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해 임소자들을 위로하고 청소, 답소나누기 등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30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5년 건설사업설계단 출범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온천골에서는 26일 북부동 소속 미화원 11명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대접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사랑을 가득 담은 따뜻한 국밥 한그릇 하세요”

온천골 식당, 경산시 북부동 환경미화원 초청 점심 식사 대접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온천골(대표 박수근)에서는 26일 북부동 소속 미화원 11명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대접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박수근 대표는 식당의 주 메뉴인 소고기 국밥 등을 정성껏 준비해 미화원들에게 풍성한 식사를 제공했다.

박수근 대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동네 환경정비를 위해 애쓰시는 미화원 여러분들을 위해 정성

들어 음식을 준비했다”며, “맛있게 드시는 미화원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기쁘며,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깨끗이 유지될 수 있으니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관희 북부동장은 환경미화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신 박수근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북부동이 정결을 위해선 환경미화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역할이 크다”며 깨끗한 시

가지 준비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당부했다.

한편 영남대학교 기숙사 인근에 위치한 온천골 식당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소고기국밥 전문점으로 경산시 모범음식점, 대한적십자사가 지정한 희망봉사, 대구은행이 추천하는 베스트 of 베스트, 영남대학교 장학후원의 집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는 식당이다.

이인호 기자

윤재철 기자

2014 시책추진 종합평가 우수부서·공무원 선정

안동시는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을 선정했다.

우수부서 선정은 주요업무자체평가, 3.0우수시책 발굴실적 등 주요시책평가와 다면평가를 통해, 최우수부서는 산림녹지과를, 우수부서는 평생교육새마을과·세정과, 장려부서는 기획예산실·전략사업팀·녹색환경과·하회마을관리사무소를 각각 선정했다.

한편 최우수공무원은 조립사업과 숲가꾸기사업, 임업경영인 지원 사업 등 산림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산림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산림녹지과 김용수 산림경영담당장이 선정돼 표창패와 순금배지를 받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공무원은 새마을 해외시범마을 조성사업, 자원재활용 수집운동 등 제2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평생교육새마을과 우태남 새마을봉사담당과 함께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방법 확대 및 세외수입 징수를 제고에 기여한 세정과 김성일 주무관이 선정됐다.

시는 “매년 연말 시책추진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통한 행정의 능률화와 생산성을 도모해 시정추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불이 사라지면 행복이 살아납니다

작은 불씨가 우리 모두의 행복을 태워버립니다.

성당, 케이블카는 두고 가고 - 개방된 등산로의 이용하고 - 취사 대신 도시락을 즐기고 -

꺼진 불씨도 꼼꼼하게 다시 보고 남의 불씨도 꼭 경계하세요

산불이 사라지면 산림이 살아납니다. 산불이 사라지면 행복이 살아납니다.

산불예방! 녹색미래를 지키는 행복한 습관입니다.

산불신고 : 054-859-1115

특별기고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화재피해 줄이자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각 가정에서는 각종 난방·전열기구 등의 잦은 사용으로 인한 취급부주의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14년(1~11월) 발생한 전체 화재 38,144건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25%에 해당하는 9,69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화재발생원인은 부주의(51%), 전기적요인(2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를 보더라도 주택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인건 분명하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해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5일부터는 신축과 개축 등 건축허가 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화재는 평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김규수
안동소방서장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초기 소화를 위한 소화기 그리고 화재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기초소방시설로 화재를 예방하거나 초기에 발견하여 진압한 사례는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다. 지난 4월 청송군 주택에서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집 앞 뒷밭으로 일하러 나간 사이 냄비가 과열되어 연기가 발생하였으나 주택 내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이 119에 신고하여 자칫 주택화재로 전소될 우려가 있었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덕택으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감지해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장치의 일종으로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케 하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파차 1대 보다도 더 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동소방서에서는 안동·청송·영양지역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2008년부터 올해까지 관내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감지기와 소화기 보급에 나서고 있다. 고령자들이 대다수 거주하고 소방서와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해 화재시 초기대응이 곤란한 곳 24개 마을을 선정,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고 총 3,089대의 소화기와 2,551대의 감지기 보급사업을 펼치고 있다.

비상구가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문이라면, 단독경보형 감지기에서 발생하는 경보음은 대피를 알리는 생명의 소리이며, 소화기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재산 지킴이이다.

나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값진 선물이란 생각으로 주택화재예방에 탁월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자발적 설치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

社說

근로자를 절망케하는 임금 체불

연말이 다가오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올해 대구·경북 지역의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대구·경북 지역의 체불액은 840억9100만원(1만982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33억1900만원에 비해 32.8%(207억원) 늘어난 수치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힘겹게 하루를 연명하고 있을것을 생각하니 염려스럽기 그지없다.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다.

근로자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가 힘들어지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돈을 훔치거나 갖지 않을 때는 심하게 비난을 하면서도, 타인의 시간과 노동력을 훔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임금체불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피해자의 대다수가 저소득층이고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 때문이다.

공사현장의 일용직이나 소규모 자영업의 종업원을 비롯, 소위 알바 청소년 등 권력 없는 근로자들이 탐욕스러운 임금체불관행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이들의 곤궁한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임금체불

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경기가 좋지 않고 특히 영세업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임금을 줄 수 없어 속병을 앓고 있는 업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악덕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삭감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비용을 먼저 해결하고 임금은 나중에 주어져 된다는 사고부터 고쳐야 한다.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임금체불이 사회질서를 뿌리부터 흔들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질 나쁜 범죄라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수사당국이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한다. 근자에는 소액의 체불에 대해서도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처벌도 강화되고 있지만 고용주, 근로자, 관련기관 모두의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

계도와 강력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고쳐야한다.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의 어두운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기고

화목보일러 사용 시 안전수칙 꼭 지켜야

겨울한파가 다가옴에 따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설치한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불티가 날리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유가 및 경기한파 등의 여파로 연료비 절감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설치하는 주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화재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화목보일러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화목보일러는 연료의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릴 뿐만 아니라 사용자 대부분이 편의를 위해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땀감을 쌓아놓는다는 점에서 화재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특히 화목보일러 사용자 대부분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이 어렵고, 소방차 출동시간이 도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 걸려 재산피해 또한 크다.

그러면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화목보일러 화재예방요령은 ▲추녀를 관통하는 연통은 반드시 불연재로 감쌀 것 ▲



이지원
영천소방서 예방안전과

기진화를 위한 소화기나 모래, 소방용수 등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겨울철 농촌지역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 인구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유사시 대응능력이 떨어져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 화마를 부를 수 있는 화목보일러 각별한 주의와 함께 화재를 대비해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등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상투데이 hppt//경상북도신문.kr

발행·편집인 이 승 협	편집국장 장 영 철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판대·광고국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경영·관리국 (054)748-3000
사회부 <구내>1006	F A X (054)748-3663
사회2부 <구내>1005	구독·광고·제보 ☎054-748-0070
문체부 <구내>1007	mail : gst3000@naver.com
정경부 <구내>1008	구독료 월정 10000원/기부당 500원

·경북 경주시 원화로 244(황오동)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을 겨울 한파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을 겨울은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등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다.

경북 북부 산간지역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까지 떨어져 옷장에서 제일 두툼한 옷을 꺼내 입을 정도다.

또 한파가 일찍 찾아와 교통사고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겨울철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이유는 빙판길 운전 부주의에서 대부분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운전하는 사람들의 해이가 사고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물론 눈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서행운전으로 치사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도나 고속도로에서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때문에 음주운전이나 과속은 절대 금물이다. 생명 피인 안전적 작용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칼바람 한파는 저체온증과 동상을 발생케 할수있어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

한파는 저온의 한랭기단이 위도가 낮은 지방으로 몰려가면서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져 일으키는 현상이다.

경북 남부권 지역은 비교적 북쪽지역보다 기온이 높다고 하지만 최근 체감온도는 -5도 이상에 머무는 등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칼바람 한파에는 고혈압·뇌졸중·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노약자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하다.

외출시에 동상에 걸리거나 저체온증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도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동절기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의 건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계속되고 있는 한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분을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과 실내 온도를 16도~20도 정도 유지하는게 좋다.

아울러 기상정보를 수시로 청취하면서 운전 안전수칙·건강수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을 쓰야 한다.

한파로 인한 시설채소 피해를 막으려면 보온용 커튼과 피복재는 헤드는 즉시 걷고 해지기 전 단아주는 등.하우스 내 온도조절이 우선이다.

특히 야간 최저온도는 열매채소류의 경우 10~12℃ 이상, 잎채소류는 8℃ 이상을 유지해 애써 가꾼 농작물이 한파나 냉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15년

칠백년 **경북**의 소리!
천년을 향한 **영덕**의 빛으로!

영덕해맞이 축제

송년음악회

2014. **12.31.** |수| 19:30 ~ 23:00
영덕군 강구면 삼사해상공원 주차장 무대



김수화



현 숙



정훈희



마 아



동물원



추가열



소 명



김잔디



진 성



강 민



박주희



문연주



박우철



지원이



박미영



원미연

